

□ 개요

- 기관명 : 삼호본동경로당, 삼동분회경로당, 삼남분회경로당
- 일 시 : (1차) 12.11(수) 14:00~17:00, (2차) 12.12(목) 13:00~15:00, (3차) 12.12(목) 15:00~17:00
- 내 용 : 지역 노인복지시설 태양광 설비 점검 및 환경 미화
- 참석자 : 남용우 대리 등 공단직원 8인
- 작성자 : 신재생에너지보급실 남용우 대리

<삼호본동경로당 현황>

- 설립목적 :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노인 복지 증진
- 주 소 : 울산 남구 북부순환도로 44번길 24
- 인원현황 : 이용인원 30명

<삼동분회경로당 현황>

- 설립목적 :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노인 복지 증진
- 주 소 : 울산 울주군 삼동면 사촌길 2
- 인원현황 : 이용인원 30명

<삼남분회경로당 현황>

- 설립목적 :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노인 복지 증진
- 주 소 : 울산 울주군 삼남면 중남1길 4
- 인원현황 : 이용인원 30명

□ 내용

- “당신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다고 꿈꾸는 그 모든 일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 그리고 기적이 모두 숨어있다” 대문호로 알려진 괴테의 용기에 관련된 말입니다.

보급실에서 민원전화만 받던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나 봅니다. ‘우리는 민원 최전선에서 일하는 일꾼들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앞장서 왔으며 모두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이다.’ 라는 생각도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보급사업 전반이며 용기를 낼 수 있는 일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분야 모두에 관해서입니다.

- 올해도 태풍이 어김없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13호 태풍 링링, 17호 태풍 타파, 18호 태풍 미탁이 상륙하였고 3개의 태풍은 총 26건의 태양광 발전소에 피해를 남기고 돌아갑니다.

7월부터 보급실과 산업실은 비상대책위를 가동하느라 한창 바쁩니다. 태풍피해 예방활동을 하고 소비자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태풍피해는 바람피해가 많은 것에 비하면 태양광 피해는 미미한 편입니다.

하지만, 개인시설로 항상 관리하는 주인이 있는 건물, 주택사업과는 다르게 정부가 투자하여 운영하는 양로원, 노인정, 어린이집 등의 지역지원사업은 담당자가 점검하지 않는 이상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자신의 설비라는 인식이 없는 공공건물에 설비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물러간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담당하는 보급실 남용우 대리와 “신재생에너지 안전, 시공기준”을 담당하는 산업실의 조현택 대리는 사후관리 안전관리 강화 T/F를 꾸리고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일단 “가까운 내 이웃부터” 라는 기조하에 올해 이전한 도시인 울산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http://www.ulsan1365.or.kr>)에 연락을 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에서 지역지원사업 명단을 비교 대조하여 지역지원사업 중에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찾아봅니다. 그 결과 3곳의 경로당이 선정 됩니다.

- 경로당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몇 안 되는 여가 공간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이동이 제한된 어르신들은 마을 사랑방에서 밥도 해먹고, 문화생활도 하면서 작은 보금자리로 이용합니다. 특히 추운 겨울엔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기 경로당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경로당은 안전해야 합니다. 난방과 가스시설 오작동의 위험에서 자유로워야 함은 물론이고 전기 시설 역시 안전하게 가동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부분 건물 옥상에 위치해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점에 착안하여 이번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지역지원사업으로 태양광을 설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비를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차후 보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보급실에서 보급한 설비에 울산 이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모든 준비는 철저해야 했습니다. 먼저, 보급실의 지역지원사업 담당자, 사후관리 담당자, 건물주택지원 담당자가 한데 모여 ‘어벤저스 봉사단’ 을 꾸렸습니다. 각 분야의 베테랑들이 모여 그 동안의 설치확인 노하우, 시공기준 제정 노하우를 활용해 태양광 설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태양광 패널 청소와 주변 시설 개선활동을 진행하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때보다 추웠던 활동일, 청소 장비, 방위각 측정기 등으로 무장하고 나섰습니다. 설치 당시의 현장점검표까지 출력했으나 가자마자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인버터의 전원이 켜지지 않아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육안으로 전기 배선이나 설비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전기요금 고지서도 체크했으나 언제부터 발전이 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상황을 인지하고 시공업체에 연락을 취했을 때는 거리가 멀어 당장 출장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당황했으나 이는 사후관리 업무의 영역이라 판단했고 복귀 후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점검인 설치 상태 및 경사각 확인 등을 마치고 예정대로 태양광 패널에 쌓인 먼지를 청소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쌓일 경우 발전 효율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상이 가지 않게 물로 닦아내자 이물질 제거한 태양광 패널은 마치 새 것 같아 보였습니다.



같이 나갔던 삼동분회경로당을 제외하고 2개의 경로당인 삼호본동 경로당, 삼남분회경로당에서는 인버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무사히 설비 점검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일일발전량과 생산시간은 적정 한지 확인하고 옥상에서 내려오는데 어르신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태양광 설비 설치 이후 전기요금 걱정 없이 경로당을

이용한다고 말씀해주셔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광 설비 이용 요령을 설명 드렸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한 번 설치하면 최대 20년가량 오랫동안 사용해 사후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하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화재, 강풍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향후 태풍 발생 시 사전점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구조물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제거하고, 태풍이 지나가기 전 옥상에 출입하지 않고, 태풍 시 전기 설비를 조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신 것 같았지만 태양광 시설 관리 담당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이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서야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안전 사고 대비 요령 안내



주변 시설 정비

설비 점검이 끝난 후에는 경로당이 위치한 삼동면 일대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미처 관리되지 못한 생활 쓰레기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혹한의 날씨였지만 경로당에서 휴식을 취하시던 어르신 분들도 자발적으로 쓰레기 수거 활동에 동참해주셨습니다. 특히 “평소 경로당 주변에 미처 신경 쓰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깨끗해졌다” 며 감사를 표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을 맞이하여 경로당에 각 5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기부했습니다. 이는 전기 및 수도요금, 난방비,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운영비로 쓰일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전달받은 상품권으로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함박웃음을 지으셨는데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삼남분회경로당 설비 점검



온누리 상품권 기증식

회사로 복귀한 후 작동하지 않는 인버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기관인 울주군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담당자와 수리 방안 및 향후 점검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경로당에 시설점검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취약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 내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여 보급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따뜻한 남쪽 도시라고 생각했던 울산도 겨울에는 살이 떨릴 만큼 춥습니다. 갈수록 추워지지만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요금 걱정 없이 난방을 이용한다던 어르신들이 생각납니다. 앞으로도 추위에 떨지 않고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겠습니다. 낯선 공단 직원을 반갑게 맞이해주시던 어르신들이 오래 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에필로그

① 삼호본동경로당(삼호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 052-226-2584

홈페이지 : www.ulsannamgu.go.kr/dong/samho/

② 삼동분회경로당(삼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 : 052-204-4965

홈페이지 : www.ulju.ulsan.kr/samdong/guidance

③ 삼남분회경로당(삼남면 행정복지센터)

전화 : 052-204-4923

홈페이지 : www.ulju.ulsan.kr/samnam/introduce

- 참고사항 : 타 사회복지기관과 달리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 연락을 취해야 방문이 용이합니다.
- 사회공헌 활동 담당자를 위한 팁 : 사회공헌은 자선에서 참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은, 수혜기관의 니즈를 실제로 충족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이 중요합니다. 기관과 부서 고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투입 대비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